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손 행 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불치병과 난치병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정통 의료를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정통 의료 밖의 다양한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다(Eisenberg et al., 1998). 정통 의료 밖의 치료법들은 보완대체요법이라고 하는데, 치료의 원리나 효과의 과학성 결여로 인하여 정통 의료권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여 왔다(Lerner, 1993). 이 결과 많은 환자들은 의료인에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음성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Choi, 1998; Eisenberg et al., 1993; Park & Lee, 2000; Son & Suh, 1998; Son, 1999). 이는 질병 치료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자와 의료인의 관계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환경속에서 의료인의 관심과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nd Associated Archives Journal(1998)은 주제 이슈로 보완대체요법을 다룬 바 있으며, 보완대체요법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Eisenberg et al, 1993, 1998) 뿐만 아니라 효과 검증과 중재로서의 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Balinski, 1998; Norred, Zamudio, & Palmer,

2000)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료인 스스로가 보완대체요법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정통 의료 체계내에서 보완대체요법을 통합하려는 의료인의 태도 변화와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Eisenberg, 1999)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의료인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일차적으로 질병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치료법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될 보완대체요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다(Ko & Berbrayer, 2000). Fitch et al.(1999)은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감정을 지지하며, 특정 보완대체요법 사용 시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전문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Geddes & Henry, 1997)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보완대체요법의 실무 적용과 활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간단히 몇 개의 질문을 이용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파악하는 것으로(Boucher & Lenza, 1998; Damilkier et al., 1998; Easthope, et al., 2000; Verhoef & Page,

* 본 연구는 2000년도 동국대학교 신입교원 연구비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

1998)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파악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연구들은 시행 실패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로(Chun, 1998; Lee et al., 1999; Lee, 2001; Son & Suh, 1998)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다양한 보완대체요법을 추구하는 환자의 건강행위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 개발과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 2)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와 태도의 하위 영역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 1)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 의과대학에서 폭넓게 가르치지 않고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료법이다(NIH NCCAM, 2001).
- 2) 정통의료 : 정규 의과대학에서 가르치고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학적 중재이다(NIH NCCAM, 2001). 본 연구에서는 생의학 모형에 따른 서양의 현대의학을 의미한다.
- 3)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 이론적 정의 : 태도란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따위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준비 태세로서의 마음가짐(동아 새 국어사전)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마음가짐을 말한다.
 - 조작적 정의 :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무 적용, 치

료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방법론적 연구와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서울시 소재 2개 대학병원과 인천시 소재 1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00명을 임의표출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대상자가 자가 보고형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287부이었으나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263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과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간호사로부터 수집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만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자가보고형 설문지이었다. 도구의 내용은 보완대체요법의 실무 적용, 치료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등의 4영역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로 구성되었고 5점 척도의 총화평정척도이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사항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점수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Cronbach's α 와 문항분석,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와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연구 대상자가 서울·인천 지역의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 간호사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상태는 미혼이 68.9%로 가장 많았다.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8.6%이었으며, 근무 기간은 평균 5.38년이었고 1년에서 4년 사이가 52.9%로 가장 많았다. 근무병동은 암 병동이 30.0%, 내과가 27.8%, 외과 20.5%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냈다<Table 1>.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9.03세이었고 25세에서 29세 사이가 56.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는 간호학과 졸업이 62.7%, 종교는 무교가 40.3%, 결혼

2.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토대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간호사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이나 내용을 그림 1과 같이 개념적 틀로 구성하였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작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N)	percentage (%)
age	less than 25 years	22	8.4
	25-29 years	148	56.3
	30-34 years	66	25.0
	35-39 years	16	6.1
	more than 40 years	10	3.8
	no response	1	0.4
education level	university	165	62.7
	college	98	37.3
religion	Christianity	94	35.7
	Catholicism	33	12.6
	Buddhism	19	7.2
	none	106	40.3
	other	4	1.5
	no response	7	2.7
marital status	yes	79	30.0
	no	181	68.9
	no response	3	1.1
position	staff nurse	233	88.6
	head nurse	28	10.6
	no response	2	0.8
number of working years	less than 5 years	139	52.9
	5-9 years	75	28.5
	10-14 years	25	9.5
	15-19 years	8	3.0
	more than 21 years	5	1.9
	no response	11	4.2
ward	internal medicine	73	27.8
	surgery	54	20.5
	oncology	79	30.0
	psychiatry	10	3.8
	critical care unit	40	15.2
	no response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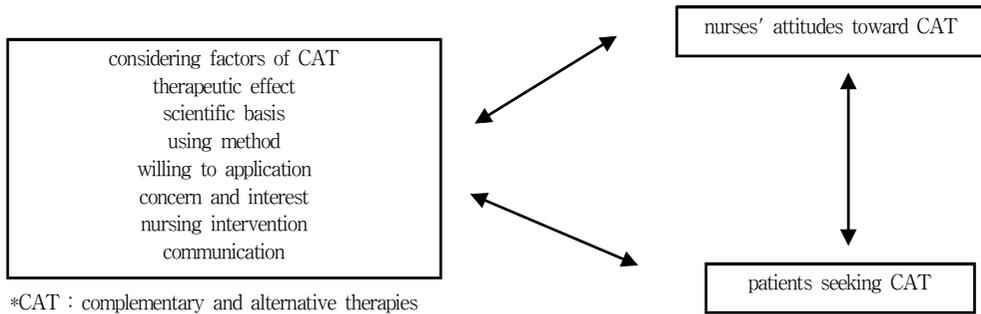
은 본 연구자의 문헌고찰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간호사들의 생각을 개방형 질문으로 기록하게 하여 얻은 자료를 근거로 1차로 33문항의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학과 교수 2인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간호사 2인에게 문항 표현의 부적절성이나 중복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증받았는데 내용의 중복성이 지적된 5문항을 삭제하였다.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은 28문항으로 대학병원 내과 병동과 암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4명을 편의 추출하여 사전조사를 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28문항 모두 적합하다는 간호사들의 반응을 수렴하여 최종 28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 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계수가 0.8~0.3인 문항을 선정하였다(Lee et al., 1998). 상관계수가 0.3미만인 5문항을 제외시킨 23문항이 선정되었고, Bartlett 검정을 통해 모상관 행렬의 단위행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근거를 갖고 23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Kaiser-Meyer-Olkin=0.899, Bartlett test of sphericity=2629.303, P=0.000). 23문항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한 후 Varimax 회전을 하여 최종적으로 고유값(eigen value)이 1.0보다 크고, 상관계수가 0.4 이상(Lee et al., 1998)인 요인 4개를 추출하였다 <Table 2>. 각 요인은 실무 적용, 치료 효과, 사회적 관

<Table 2> Factor analysis

item content of each factor	factor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application :				
CAT can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0.815			
CAT can be developed as a nursing intervention	0.805			
CAT should be introduced nursing curriculum	0.782			
Paradigm of CAT is similar to that of nursing	0.751			
CAT is desirable to use for maximizing therapy of disease	0.676			
Nurses are willing to refer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st for patients	0.603			
Nurses are willing to apply useful CAT for patient	0.587			
therapeutic effect :				
CAT has not scientific evidence		0.747		
CAT is a quackery		0.610		
CAT do not provide by medical professionals		0.570		
CAT has only placebo effect		0.569		
CAT has ideas and methods helping conventional medicine		0.523		
CAT is effective,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its effect scientifically		0.501		
CAT facilitate natural healing process of human body		0.488		
CAT can overcome uncertainty of conventional medicine due to its ineffectiveness		0.456		
social interest :				
CAT is used for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popularly			0.817	
CAT is interested by public as well as patient			0.743	
CAT is dealt by mass media			0.556	
CAT is complementary for conventional medicine			0.488	
CAT is interested by public for relieving symptom and improving wellbeing			0.465	
communication :				
Nurses should have to open communication with patient about using CAT				0.833
Nurses should listen to their patients about using CAT actively				0.770
Nurses should discuss with doctor for patient using CAT				0.730
Eigen value	8.618	1.968	1.437	1.319
Percent of the total variance explained	37.469	8.559	6.250	5.736
Cummulative percent	37.469	46.027	52.277	58.013

* CAT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심, 의사소통 등으로 명명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coefficient를 구하여 검증하였다. 전체 23문항의 Cronbach's α 는 0.7405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alpha=0.7432 \sim 0.8939$ 이었다<Table 3>.

<Table 3> Reliability of scale of nurses' attitudes toward CAT

categories	Cronbach's α
attitudes	0.7405
application	0.8939
therapeutic effect	0.8154
social interest	0.7509
communication	0.7432

3.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총점 115점 중 평균이 80.58점, 중위수 80점이었다. 하위 영역별 태도 점수를 살펴보면 실무 적용에 대한 태도는 평균이 22.82점, 치료 효과에 대한 태도 평균은 26.30점으로 각각의 중위수 23점, 26점과 거의 일치였다. 또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이 18.12점이었다.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12.88점과 중위수 14점으로 매우 높았다<Table 4>. 구체적으로 태도의 각 하위 영역별 문항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태도는 5점 척도의 총화평정척도로 측정된 것을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 중립의 3가지 태도로 결과를 제시하였다<Table 5>. 실무 적용 영역에서 간호중재로 적용(50.4%), 간호중재로 개발(53.8%) 직접 적용할 의사가 있음(42.8%) 교과과정에 도입(40.0%) 등에 가장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치료 효과 영역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는 없지만 보완대체요법이 가지고 있는 치료 효과(57.0%)와 자연 치유 과정 촉진(55.0%), 보완대체요법의 사상과 방법(44.9%), 보완대체요법이 영터리 치료법이 아님(64.2%)에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관심 영역과 의사소통영역은 모든 문항에서 높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교육과 근무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6>. 구체적으로 교육과 근무기간에 따라 태도의 하위 영역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교육 정도와 실무 적용, 치료 효과, 사회적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기간에 따라서는 실무 적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4> Scores of attitudes toward CAT

categories	total score	median	mean \pm SD
attitudes	115	80	80.58 \pm 9.78
application	35	23	22.82 \pm 4.28
therapeutic effect	40	26	26.30 \pm 3.91
social interest	25	19	18.12 \pm 2.35
communication	15	14	12.88 \pm 1.99

4.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와 하위 영역과의 관련성

태도와 태도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실무 적용($r=0.865$)이나 치료 효과($r=0.865$), 사회적 관심($r=0.781$)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태도와 의사소통($r=0.283$)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는 실무 적용과 치료 효과가 $r=0.675$ 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무 적용과 사회적 관심이 $r=0.620$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의사소통 영역은 다른 영역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Table 5> Attitudes towards CAT

items	agree/strongly agree N(%)	neutral N(%)	diagree/strongly disagree N(%)
application :			
CAT can be applied as a nursing intervention	131(50.4)	101(38.8)	28(10.8)
CAT can be developed as a nursing intervention	140(53.8)	92(35.4)	28(10.8)
CAT should be introduced nursing curriculum	104(40.0)	121(46.5)	35(13.5)
Paradigm of CAT is similar to that of nursing	73(28.2)	136(52.5)	50(19.3)
CAT is desirable to use for maximizing therapeutic effect	101(38.4)	130(49.4)	32(12.2)
Nurses are willing to refer to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st for patients	64(24.4)	123(46.7)	76(28.9)
Nurses are willing to apply useful CAT for patient	112(42.8)	114(43.5)	36(13.7)
therapeutic effect :			
CAT has not scientific evidence	47(17.9)	141(53.6)	75(28.5)
CAT is a quackery	12(4.6)	82(31.2)	169(64.2)
CAT do not provide by medical professionals	114(43.3)	97(36.9)	52(19.8)
CAT has only placebo effect	63(24.2)	123(47.3)	74(28.5)
CAT has ideas and methods helping conventional medicine	117(44.9)	122(46.7)	22(8.4)
CAT is effective,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its effect scientifically	145(57.0)	101(38.8)	11(4.2)
CAT facilitate natural healing process of human body	144(55.0)	95(36.2)	23(8.8)
CAT can overcome uncertainty of conventional medicine due to its ineffectiveness	30(11.4)	140(53.2)	93(35.4)
social interest :			
CAT is used for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popularly	185(70.6)	66(25.2)	11(4.2)
CAT is interested by public as well as patient	194(74.0)	65(24.9)	3(1.1)
CAT is dealt by mass media	122(47.3)	101(39.1)	35(13.6)
CAT is complementary for conventional medicine	162(63.5)	75(29.4)	18(7.1)
CAT is interested in public for relieving symptom and improving wellbeing	166(63.4)	82(31.3)	14(5.3)
communication :			
Nurses should have to open communication with patient about using CAT	227(87.6)	8(3.1)	24(9.3)
Nurses should listen to their patients about using CAT actively	222(88.8)	10(4.0)	18(7.2)
Nurses should discuss with doctor for patient using CAT	219(84.5)	15(5.8)	25(9.7)

* exclude no response

<Table 6>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s CA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ttitudes towards CAT			
		N	mean±SD	t or F	P
education	university	143	81.80±10.02	2.51	0.01*
	college	80	78.41± 8.62		
religion	yes	123	81.30± 9.36	0.99	0.32
	no	93	79.96±10.23		
age	~26 years	78	79.17± 9.00	1.65	0.19
	27~30 years	83	80.71±10.12		
	31 years~	62	82.19±10.16		
number of working years	1~5 years	127	79.20± 9.82	2.53	0.01*
	6 years~	88	82.61± 9.50		
ward	internal medicine	64	82.53±10.17	1.79	0.15
	surgery	45	81.15± 9.17		
	oncology	69	79.28±11.02		
	other	40	80.51± 9.831		

* P<0.05 ** exclude no response

<Table 7>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s CAT in subcategori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		number of working years		
		university	college	N	1~5 years	6 years ~
application	N	163	95	N	141	106
	mean±SD	23.26±4.51	22.04±3.74	mean±SD	22.23±4.35	23.66±4.14
	t		2.352		2.601	
	P		0.02*		0.01*	
therapeutic effect	N	162	92	N	140	103
	mean±SD	26.77±4.07	25.47±3.49	mean±SD	26.02±3.83	26.83±4.00
	t		2.569		1.590	
	P		0.01*		0.11	
social interest	N	157	95	N	137	101
	mean±SD	18.49±2.29	17.50±2.35	mean±SD	17.94±2.28	18.46±2.40
	t		3.230		1.709	
	P		0.00*		0.08	
communication	N	155	95	N	141	100
	mean±SD	12.88±2.57	12.88±2.59	mean±SD	12.71±2.75	13.08±2.37
	t		0.001		1.067	
	P		0.99		0.28	

*P<0.05 ** exclude no response

<Table 8>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and subcategories

	attitudes	application	therapeutic value	social interest	communication
attitudes	1.000	0.865*	0.865*	0.781*	0.283*
		(0.000)	(0.000)	(0.000)	(0.000)
application	0.865*	1.000	0.675*	0.620*	0.354*
	(0.000)		(0.000)	(0.000)	(0.000)
therapeutic effect	0.865*	0.675*	1.000	0.648*	0.272*
	(0.000)	(0.000)		(0.000)	(0.000)
social interest	0.781*	0.620*	0.648*	1.000	0.329*
	(0.000)	(0.000)	(0.000)		(0.000)
communication	0.283*	0.354*	0.272*	0.329*	1.000
	(0.000)	(0.000)	(0.000)	(0.000)	

* P<0.01 ** exclude no response

치료적 가치와 의사소통은 r=0.272로 가장 낮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Table 8>.

IV. 논 의

본 연구는 만성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성행하고 있는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논의하기에 앞서,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정통의료체계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한방간호와 보완대체요법의 영역 구분 및 정체성 확립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NCCAM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정의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한의학을 보완대체요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볼 때 (Son, 2001), 본 연구자를 포함한 간호사들의 교육적 배경이 한의학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 서양의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는 보완대체요법의 과학성 결여, 보조요법으로서의 기능, 위약효과, 정통의료에 대한 입장, 자연 치유력 등에 대하

여 몇 개의 간단한 질문으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나 전망 등을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Easthope et al., 2000; Verhoef & Page, 1998; Yoon et al., 1999). 그러나 본 연구는 도구개발을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실무 적용, 치료적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하려고 하였다.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높은 태도 점수는 간호사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의사들은 비교적 개방적인 자세로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Gray et al., 1997; Ko & Berbrayer, 2000; Newell & Sanson-Fisher, 2000; Verchoef & Page, 1998)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 개원의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Yoon et al. (1999)의 보고가 있을 뿐이며, 더구나 의사와 환자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언급한 연구들은(Choi, 1998; Park & Lee, 2000; Son & Suh, 1998; Son, 1999) 의료인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는 주로 환자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나온 결과들로 의료인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 점은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각 문항에 나타난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사들은 보완대체요법의 간호중재로서의 적용 및 개발, 치료적 가치 인정 등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보완대체요법이 영터리 치료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보완대체요법이 현대의학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지금까지 우려되어 왔던 보완대체요법의 비과학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간호중재로서의 개발과 적용에 많은 의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실제 실무 적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Son, 2001) 앞으로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의 실무 적용을 위해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간호사들이 보완대체요법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 표준화된 증거가 엄격

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Boucher & Lenza(1998)의 주장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의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들이 의사나 환자와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 사용과 관련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들고 있는 Fitch et al.(199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의료인에게 비밀을 유지하면서 음성적으로 보완대체요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Choi, 1998; Park & Lee, 2000; Son & Suh, 1998; Son, 1999) 대한 간호사들의 현실 인식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장애들이 제거되어야 환자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이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의료인이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을 때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만족스럽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자와의 관계 유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태도의 하위 영역 중 의사소통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와 기타 하위 영역과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의사소통 영역을 중요한 요인으로 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면 의료인은 보완대체요법 사용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고 영터리 치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올바른 치료법의 선택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Lazar & O'Connor, 1997). 따라서 의사소통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관계 유지와 의사결정 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깊게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일반의사들의 경우 연령, 개인적인 경험과 환자의 선호 요인 등이(Easthope et al., 2000), 간호사의 경우 연령이(DeKeyser & Cohen, 2001)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보완대체요법의 실무 적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이 길수록 간호사들의 임상경험은 많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고려가 많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보다 간호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사들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태도의 하위 영역인 실무 적용, 치료적 가치, 사회적 관심 등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대체요법의 개념이 독자적 간호 중재 개념으로 대학원 과정에서 주로 소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교육수준이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보완대체요법을 간호학 교과과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들에(Hayes & Alexander, 2000; Johson, 2000)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근무기간이나 교육 수준이 어떻게 간호사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심층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DeKeyser와 Cohen(2001), 그리고 Easthope 등(2000)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완대체요법의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임상 간호사들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9.03세이었고 교육정도는 간호학과 졸업이 62.7%이었고, 직위는 일반 간호사가 88.6%이었다. 근무 기간은 평균 5.38년이었고 1년에서 4년 사이가 52.9%로 가장 많았다. 근무병동은 암 병동이 30.0%, 내과가 27.8%, 외과 20.5%의 순이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도구는 23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로 내용 타당도와 구성타당도, 그리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는 실무 적용, 치료 효과, 사회적 관심, 의사소통 등의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0.7405이었다.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총점 115점 중 평균이 80.5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 평균 태도 점수는, 실무 적용 22.82점, 치료 효과 26.30점, 사회적 관심 18.12점, 그리고 의사소통 12.8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에 나타난 태도를 살펴보면,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 교과과정 도입, 치료적 가치 인정, 건강유지증진 및 현대의학 보완, 개방적인 의사소통

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는 교육과 근무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태도의 하위 영역별 차이는 교육 정도와 실무 적용, 치료 효과, 사회적 관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과 실무 적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태도와 태도의 하위 영역과의 상관관계는 태도와 실무 적용, 치료 효과, 사회적 관심 등은 높은 관련성을 보인 반면, 태도와 의사소통은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1) 임상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2)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보완대체요법의 종류, 적용 및 효과 평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간호사들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4)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References

- Balinski, A. A. (1998). Use of Western Australian flower essences in the management of pain and stress in the hospital setting. *Complement Ther Nurs Midwifery*, 4(4), 111-117.
- Boucher, T. A., & Lenza, S. K. (1998). An organizational survey of physicians' attitudes about and practic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4(6), 59-65.
- Choi, Y. J. (1998). *A study on complementary treatments of cancer patients in a hospita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un, H. S. (1998).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therapies used by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Damikier, A., Elverdam, B., Glasdam, S.,

- Jensen, A. B., & Rose, C. (1998). Nurses' attitudes to the use of alternative medicine in cancer patient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2(2), 119-126.
- DeKeyser, F. G., & Cohen, B. B. (2001). Knowledge levels and attitudes of staff nurses in Israel towards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J Adv Nurs*, 36(1), 41-48.
- Easthope, G., Tranter, B., & Gill, G. (2000). General practitioner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therapies. *Soc Sci Med*, 51(10), 1555-1561.
- Eisenberg, D. M. (1999).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Introduction and overview*. The international symposium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Asan Medical Center.
- Eisenberg, D., Davis, R. B., Ettner, S. L., Appel, S., Wilkey, S., Rompay, M. V., & Kessler, R. C. (1998). Trends in alternative medicine use in the United States 1990-1997. Results of a follow-up National Survey. *JAMA*, 280(18), 1569-1575.
- Eisenberg, D., Kessler, R. C., Foster, G., Norlock, F. E., Calkins, D. R., & Delbanco, T. L. (1993). Unconventional 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 Prevalence, costs, and patterns of use. *N Engl J Med*, 328(2), 95-99.
- Fitch, M. I., Gray, R. E., Greenberg, M., Labrecque, M., Pavlin, P., Gabel, N., & Freedhoffs, S. (1999). Oncology nurses' perspectives on unconventional therapies. *Cancer Nurs*, 22(1), 90-96.
- Geddes, N., & Henry, J. K. (1997). Nursing and alternative medicine : Legal and practice issues. *Journal of Holistic Nursing*, 15(3), 271-281.
- Gray, R. E., Fitch, M., Greenberg, M., Voros, P., Douglas, M. S., Labrecque, M., & Chart, P. (1997). Physician perspective on unconventional cancer therapies. *J Palliat Care*, 13(2), 14-21.
- Hayes, K. M. & Alexander, I. M. (2000). Alternative therapies and nurse practitioners : Knowledge, professional experience, and personal use. *Holist Nurs Pract*, 14(3), 49-58.
- Johnson, G. (2000). Should nurses practise complementary therapies? *Complementary Therapeis in Nursing and Midwifery*, 6(3), 120-123.
- Ko, G. D., & Berbrayer, D. (2000).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Canadian physiatrists' attitudes and behavior. *Arch Phys Med Rehabil*, 81, 662-667.
- Lazar, J. S., & O'Connor, B. B. (1997). Talking with patients about their use of alternative therapies. *Prim Care*, 24(4), 699-712.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Statistical analysis and nursing · medical research*. Seoul:Soomoom Publishing Co.
- Lee, M. S. (2001). A survey of utilization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in diabetes mellitus. *J Korean Acad Nurs*, 31(1), 7-19.
- Lee, Sang-Il, Khang, Y. H., Lee, M. S., Koo, H. J., Kang, W., & Hong, C. D. (1999).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Use in Korea : Prevalence, pattern of use, and out-of-pocket expenditures. *Korean J Prev Med*, 32(4), 546-555.
- Lerner, I. J. (1993). The Physician and cancer quackery : The physician's role in promoting the scientific treatment of cancer and discouraging questionable treatment methods. *New York State Journal of Medicine*, 93(2), 96-100.
-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2001). webmaster(On-line), <http://nccan.nih.gov>.
- Newell, S., & Sanson-Fisher, R. W. (2000). Australian oncologists' self-reported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non-traditional therapies used by cancer patients. *Med J Aust*, 172(3), 110-113.

- Norred, C. L., Zamudio, S., Palmer, S. K. (2000).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s by surgical patients. *AANA J*, 68(1), 13-18.
- Park, H. S., & Lee, Y. M. (2000). A study on use of alternative therapy in cancer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3(2), 212-227.
- Son, H. M. (2001). Nurse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with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J Korean Fund Nurs*, 8(3), 314-323.
- Son, H. M. (1999). *The Experiences of Patients Seeking Alternative Therapies for Chronic Liver Disease-the Process of Jagi Momdasrim*-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Son, H. M., & Suh, M. J. (1998). A survey of utilization of alternative therapies in chronic live disease. *J Korean Acad Adult Nurs*, 10(1), 134-147.
- Verhoef, M. J., & Page, S. A. (1998). Physicians' perspectives on massage therapy. *Can Fam Physician*, 44, 1018.
- Yoon, H. K., Kim, J. H., Oho, S. W., Yoon, Y. H., & Yoo, T. W. (1999).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primary physicians in Seoul toward alternative medicine. *Journal Korean Acad Fam Med*, 20(1), 71-78.

- Abstract -

Nurses'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Son, Haeng-Mi**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 scale for evaluation of attitudes

towar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CAT) and to investigate nurses' attitudes toward CAT.

Method: The subjects were 263 nurses working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nd Incheon. The personally designed questionnaire was tested for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Nurses' attitudes to CAT were evaluated using the questionnaire. Results: Cronbach's a coefficient was 0.7405. 23 items were selected by item analysis and 4 factors including application, therapeutic effect, social interest and communication about CAT were classified by factor analysis. The mean score of attitudes and its subcategories were high, especially that of communication was very high. Nurses had a positive response to CAT in several items: acceptance as nursing intervention, its therapeutic value, complement for conventional medicine, and open communication about CAT. Attitudes were differ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education and number of working years. There were high relationships between attitudes and its subcategories except communication. Conclusion: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 CAT was proven to be reliable and valid. Positive nurses' attitudes toward CAT will help the patients be provided with a proper and safe way to take CAT.

Key words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y, Attitude, Nur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0

** Full 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